

조계종사태... 또 불심상처



11일 승려대회 후 정화개혁회의 소속 스님들이 총무원 청사로 진입하여, 총무원측 스님 불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총무원장 자리가 뭐길래”
 “화쟁정신 어디로 갔나”
 “부처님 법으로 조속 해결하자”**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연일 언론에 내비치는 일촉즉발 종단 현실의 격랑들을 따라 얼굴을 돌리는 신도들의 눈길에는 아쉬움과 원망이 가득하다.

부처님법이 외면되는 현실에서, 불상에 분노를 뿌리는 불자들이 욕을 자살까지 벌이고 버렸다는 자조(自嘲), 아직 아물지 못한 상흔(傷痕) 위로 다시 쏟아져 내린 불타는 누가 던진 화염(火宅)의 과격인가.

상처받은 불심을 치유할 명약을 찾자는 소리가 높다. 명약은 총무원장이라는 권력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종헌법도 아니다. 우리가 첫 마음 내어 귀의한 바로 그 법이다. 가려도 가려도 주머니 속 송곳처럼 빠져 나오는 그 빛나는 법이야말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바른 길로 끌고가는 부처님의 재능이다. 다시 또 다시 귀의해야 한다. 탐심은 솟구치고 화쟁정신은 꺼져가도, 수행은 고달프고 종헌(宗憲)은 갈아엎을 자라도 후회치는 법의 책의 앞에서는 반박 정신이 들 것이므로, 최근의 조계사 사태를 한심한 종헌불음으로 치부하고 자화하기 보다는 한 순간 놓쳐버린 초발심을 다시 추스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



조계종 중앙총회는 13일 총무원 청사에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상복동 길상사에서 속개했다.

다. 방에 넘어진 차 방을 닫고 일어나서 부끄러운 현실은 더 현실적인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반동(反動)의 지혜를 착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자대중은 조계사 사태와 관련된 모든 스님들을 향해 호소하고 있다. 이관도 시관도 수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최보살이 찬불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5년전 시를 쓰면서부터. “불자들의 신심함양을 위해서는 노래가 가장 수월하다고 판단. 찬불가 보급운동에 뛰어들었어요.” 찬불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보살은 92년 김해 관음교당원을 개관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찬불가 알리기에 나섰다. 찬불가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이 전무했던 시절, 최보살은 복사한 악보를 한어울 안고 법회장을 찾아갔지만 따뜻하게 반겨주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



다. ‘신성한 법회장에서 무슨 노래냐’며 외면당하는 일도 적지 않아 짓밟힌 악보를 수거하는 일도 있었다. 그럴수록 최보살의 집념은 굳어졌다. ‘짓밟힌 악보를 줌은 정신적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찬불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최보살은 강조한다.

활동의 폭이 넓어지지 함정단을 맡아달라는 주문도 잇따랐다. 그러나 승락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는 일. 지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전문 음악인도 아니고 합창단 지도경험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최보살은 ‘합창을 위해 내 몸을 바치겠다’고 발원하고 음악학원에 입학. 음악학도와 지도자의 두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합창단을 지도하면서 불교음악에 대한 눈을 뜰 수 있었다고 말한다. 가르치는 것보다 가르칠 수 있는 찬불가가 마중했던 것이다. 그후 최보살은 합창단지도를 그만두고 찬불가 제자에 몰두했다. 그리고 각교의 노력 끝에 지난 9월 찬불가와 시가 담긴 <산사의 밤>(창명음반)이라는 태일을 출시했다.

‘이제는 교도소, 군부대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음성공양을 해주고 싶습니다.’ (0527)356-2220 김중근 기자(gamja@buddhania.com)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nia.com
 현대불교신문 http://news.buddhania.com
 부다피아갤러리 http://gallery.buddhania.com
 부다피아쇼핑몰 http://mail.buddhania.co.kr

총무원장선거 18일로 연기

중앙선거위원회 발표...장소는 추후 결정

12일로 예정됐던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가 18일로 연기됐다.

중앙선거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30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제42조 1항과 3항에 의거하여 선거일만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선거위원회는 이날 밤 10시 5명의 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18일로 선거를 연기하고 장소는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12일 오전 회의록 열어 선거위원회 현행 스님이 10일 사퇴함에 따라 덕운스님(총무원문화부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예정대로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오후 1시부터 선거업무 준비하기 위해 선거사무원들이 조계사 법당에 도착했으나 정화개혁회의 소속 스님들끼리 이 과정에서 선거사무원들과 정화개혁회의 소속 스님들간에 30여분간 심한 몸싸움이 벌어져 일부 스님과 총무원이 가벼운 상처를 입기도 했다.

예정된 선거시간인 오후 2시 경에는 총무원장을 비롯한 선거인단 70여명이 조계사에 도착했으나 선거가 연기돼 돌아갔다.

한편 중앙선거위원회는 업무를 진행하던 총회사무처 사무실이 정화개혁회의에 접수됨에 따라 조계사 인근인 관음동 백상빌딩에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조계종 정화개혁회의 발족

상임위원장에 월탄스님...11일 총무원 접수

조계종 정화개혁회의가 발족했다.

11일 오후 2시 조계사 마당에서 스님 4백여명과 신도 등 1천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전국승려대회에서 원로종진스님들과 대화장기 스님들의 인준으로 발족된 정화개혁회의는 공동의장에 백암 정대성스님을 추대했으며 상임위원장에 월탄스님을 임명했다. 안르의원 비룡, 석주, 청하, 지홍스님과 현호, 도선, 설조, 철과, 법타, 혜홍, 진관, 혜인, 정우, 성문, 진묵스님 등이 참가해 개회사, 경과보고, 발원문 낭독, 대화사, 월주스님 3선강행 규탄 등으로 진행된 승려대회 정화개혁회의를 발족시키고 4시40분부터 총무원청사 접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화개혁회의 소속 스님들과 청사진입을 막는 신

총회, 개혁회의 해산 요구

의장에 법등스님...각 분과위원장도 선출

10일 개회에 이어 13일 속개된 제135회 중앙총회는 정화개혁회의소속 스님들의 지지로 회의를 갖지 못하고 상복동 길상사에서 속개했다. 총회는 △1998년 11월 11일부터 폭력적으로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고 폭력 기물과 폭력행위를 하는 등, 종헌 불행 질서를 무너뜨리는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불법적인 소위 정화개혁회의는 즉각 해산하고 청사를 반환하라. △총정예하의 교시는 중앙총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는 또 인로와 본사주지들과 종단을 인정 시킬 것이며 “종단이 조속한 시일내에 안정을 찾지 못하고 종헌 불행 질서가 수호되지 않는다면 총회는 즉각 전국승려대회를 소집할 것이다”는 결의도 했다.

총회는 ‘인로회의법’을 개정

조계종사태 관련기사 2·3·4·23면

동화로 만나는 푸른 자연의 친구들

함미아출판 166

꽃과 친구가 되었어요

이상권 생태 동화집/정수영 그림

모든 꽃에는 다 이름이 있어요. 야기종분, 습바귀, 해미꽃..... 어떻게 이런 재미있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꽃들과 무엇을 하고 노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값 6,000원

함미아출판 167

아들로 날아간 집오리

이상권 생태 동화집/장양선 그림

물귀신 소동을 일으킨 수달, 고요이 젖을 먹고 지린 다람쥐, 청둥오리와 같은 집오리 등 흥미롭고 감동적인 우리 나라 이상 동물 이야기와 한가득 펼쳐집니다.

값 6,000원

● 어린이도서연구회 선정 과학의 달 추천도서
 ● 중앙일보 선정 '98 좋은 책 100선

(주)창작과비평사 전화 718-0541~4 팩스 713-2403 인터넷 홈페이지 www.changgi.com

원역

비노끼오의 모험 1,2

이탈리아 출신의 자음/이현경 옮김

말썹꾸러기 비노끼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인형극을 보러 갔다가 맷집이 될 뻔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던 당나귀로 변하고, 상어 뱃속에 갇히기까지 하는 비노끼오. 우리 친구 비노끼오가 들려주는 모험의 세계에 귀 기울여 보세요.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청소년권장도서(아동부문)

값 각권 6,000원

(주)창작과비평사 전화 718-0541~4 팩스 713-2403 인터넷 홈페이지 www.changgi.com